



2023년 6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2023년 6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이 좋다 한인 비즈니스 메카로 도약하는 인천

사업하기 편한 인천...재외동포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집중 전개 유정복 시장, 재외동포와 상생발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이끌 것

인천시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바빠진 잔결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발전하는 한인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인천의 건설을 위한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 한인 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인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원하는 지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 1월 8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외동포청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 및 전 세계 권역별 교류사업 확대 등 국제교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했다. 기존 투자유치과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맡는 한인비즈니스팀을 개설했다.

특히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한인비즈니스 거점도시 인천확립을 위해 인천시가 수립한 4대 전략은 △재외동포 기업(인)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재외동포 투자유치 홍보(IR) 및 홍보체계 강화 △재외동포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이다.

시는 4대 전략 아래 12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외동포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한인비즈니스센터 개소 재외동포 기업 대상 맞춤형 및 한상자본 인천유입 도모

인천시에 따르면 '한인비즈니스 센터'가 올 하반기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와 연계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송도 부영타워에 들어설 센터는 △재외동포 경제·비즈니스 정보 조사 및 인천 비즈니스 정보 제공 △세계 한인 경제인 대상 국가·지역별 투자유치 홍보(IR) △재외동포 투자유치 상담 및 컨설팅 △인천시 개발 프로젝트 사업 등에 재외동포 기업, 참여 지원 등 재외동포 경제인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시는 비자·체류자격 연장·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등의 행정절차와 생활상담·현장동행 서비스 등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창·취업을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의 국내기업 활동을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인비즈니스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인천시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도 확대·강화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재외동포청·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앙부처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세계한인무역협회·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지역대학(인천·인하대 등)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경제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고, 올 상반기에는 재외동포 기업 및 경제 단체를 초청해 투자협력 포럼, 수출·입 박람회, 해외진출 컨설팅 및 1:1 기업 매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경제교류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협약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 프로젝트 및 전략산업 연계한 투자유치 IR 전개

민선 8기 주요 프로젝트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IR, 첨단·지식기반의 전략산업분야, 원도심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전북, 오스트리아 등) 한인비즈니스 행사에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각종 전시회 참관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재외동포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과 국내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인증제

인천시는 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에게 지급하던 인센티브(고용보조금)의 기준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재외동포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인천시 투자 기업 중 국내기업 30명, 외투기업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추진배경

- 전 세계 한인 기업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의 장 마련
- 재외동포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천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추진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 **인천→재외동포 간 경제협력 기반 단계별 투자유치 전개**

1단계 (2024) 재외한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확대	2단계 (2025) 재외동포 대상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 제고	3단계 (2026~) 한인 비즈니스 거점도시 확립
--	---	---------------------------------------

주요과제

4대 전략	12개 주요과제
재외동포 기업(인)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 한인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 한인 비즈니스 국내활동 지원 ■ 재외동포 국내 창업·취업 지원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한인 경제 관련 기관(단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 참여 및 확대 ■ 재외동포 경제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DB 구축
재외동포 투자유치 IR 및 홍보체계 강화	■ 다각적 IR 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 재외동포 투자유치 국내·외 홍보관 운영 ■ 주요 프로젝트 및 전략산업 연계 투자유치 IR전개
재외동포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	■ 재외동포 기업 국내투자 인센티브 지급 ■ 한인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정비 ■ 재외동포 기업지원 관련 제도개선

사업예산 : 총 302백만원 (재외동포 초청행사 102,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 200)

향후계획

- 한인 경제단체 행사 참여 및 유치, 투자유치 사업 연계 및 발굴: 수시
- 재외동포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단계별 투자유치 추진: 연중

인천시 추진 배경 설명도

초과 1인당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재외동포 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대상 추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일부 한인경제단체 위주의 수혜성 사업을 탈피해 재외 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에 국비 공모 사업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기업 인증 제'운영을 건의해 재외동포 기업으

로서의 자격 확인을 통한 기업 신뢰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검증 절차를 단순화해 재외동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모국에 대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투자·무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천이 한인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위대한 도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